

반도여! 통일의 아침으로 깨어나라



“반섬의 아침” 작가: 김 산 하 그림설명 2면

力動하는 대학의 나라

박 이 도
<시인·문리대교수>

축

우리는 고황송속에
새끼 사자 한마리를 풀어 놓았었다
귀엽게 재롱부리다
무섭게 덤비고
홍로 학사(學舍)에 찰거하며
우당탕 뛰어나다
천지를 향해 표효도 해보던
사자여
이제 기지개를 펴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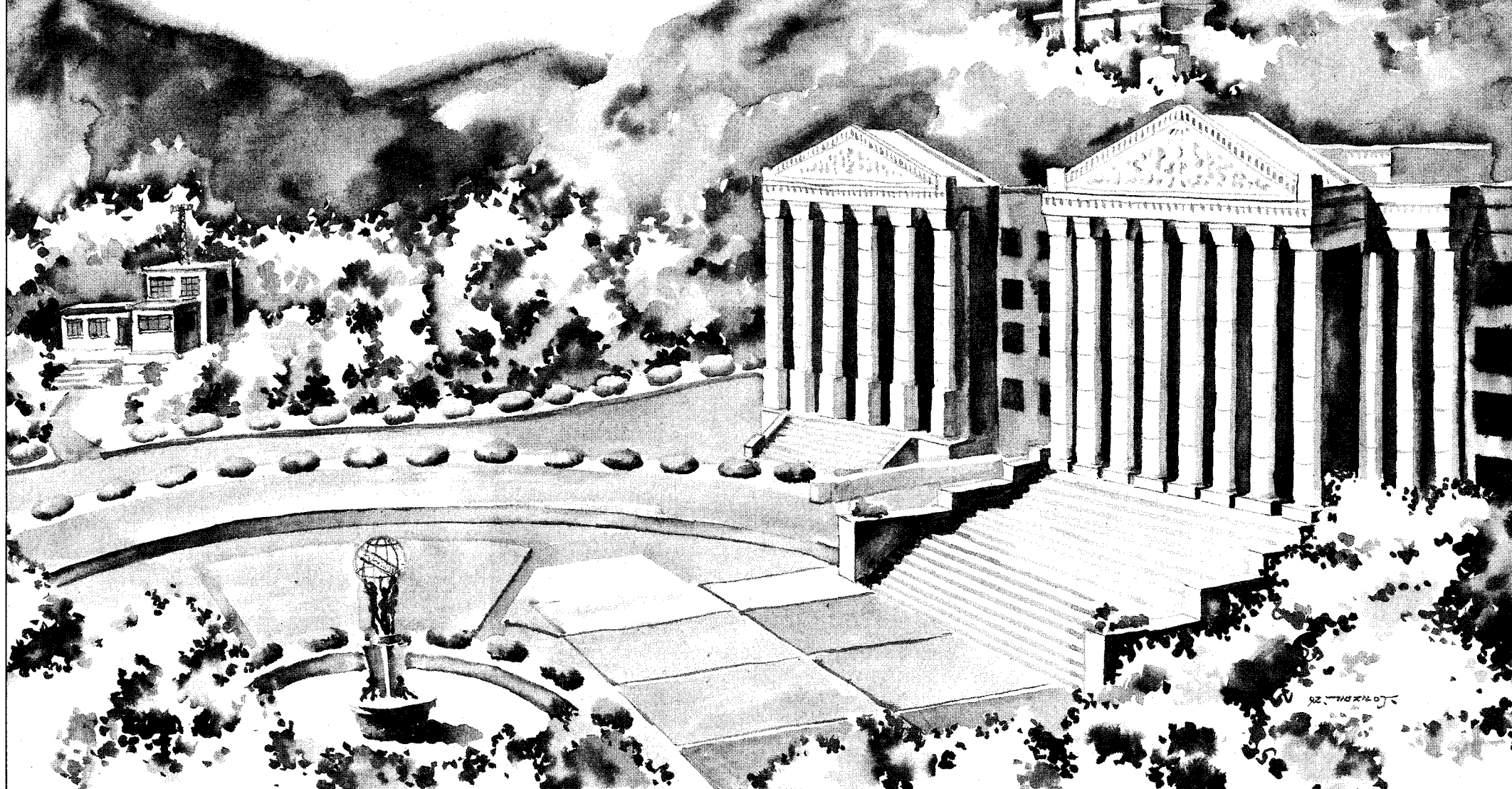
교정에선 수업이 많은 목련이 피고 지며
삼취쌍인 조국의 봉합,
자기 생존의 논리속에
이합집산하는 세계,
그 고통의 세월을 가야만 한다
이제 우리의 지구는
한 세기를 뒤로 보내며
우리의 시대
혼돈과 비극의 수렁에서
오늘은 민족의 통일과
새 세계를 지향하는 역사발전의
대토론에 나서야 하리라

우리의 토론은 진지하다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논하고 비판할지라도
편견이 아닌
아집이 아닌
사리(事理)의 핵심을 알고 나서야 하리
철리(哲理)를 추적하고
법리, 오늘 세기를 향해
응시하는 눈매를 세워야 하리

울쟁이가 개구리로 뛰고
허물벗는 애벌레가 잠자리로 날듯
이제 우리도 성숙한 필봉, 새 형식으로
지구위를 뛰고
세계를 나는
역동(力動)하는 대학의 나라를 펴고
날아야 할 때

새끼 사자 한마리가
열마리, 백마리,
천마리로 늘어나
하나의 민족, 건장한 정신을 향해
내일을 향해
웃음을 머미고 필봉을 세우라

지령1천호 이제 다시 태어 나겠습니다!



“지령1천호”

지 편 안 내

설문조사 대학언론 인식도 4면

총장대담 8면

학술특집 한국사회

지배이데올로기... 12, 13면

대 답 백기완 선생을 만나... 14면

편집일지 탐험 18면

기념소설 젊은 지식인의 변명... 20면

만 화 대학주보 만화·만평... 21면

취재면 22, 23면